

민망함과 미안한 마음에 다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에게 사과를 건넸다. 그러나 그는 멎쩍을 만큼 태연하게 우리를 반기며 자기를 소개했다.

“오늘 구덩이 파주러 온 아저씨니더! 구덩이
아저씨라예!”

말씨를 보니 경상도 사나이인 것 같았고, 꽤나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통성명을 마친 구덩이 아저씨와 나는
담배를 태우며 그날 할 일을 의논했다. 나무는
반드시 내가 심어야 하니 절대 도와주지 말라고
당부하자, 그는 일거리가 줄었다고 천연스럽게
웃었다. 우리는 돌멩이 하나를 주워다 흙바닥에
동그라미를 그려가며 나무 심을 자리를 표시했다.
순간 어린 시절에 자주 하던 사방치기 놀이가
생각났지만, 뜯금없는 추억에 빼질세라 입가에
번지던 웃음기를 없앴다. 어느 자리가 좋을지
몇 번씩 그리고 발로 비벼 지우기를 반복한

뒤에야 본격적인 일이 시작됐다. 구덩이가 아저씨가 땅을 파고 옆으로 비키자 나는 땅속에 매립분을 집어 넣었다. 그런데 나를 지켜보던 그가 갑자기 빠하고 소리를 질렀다.

“지금 뭐하는 기고?”

당황해서 뒷말이 튀어나온 모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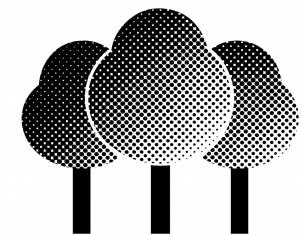
“아, 이거 매립분이에요. 땅속에 심는 화분이요.
나죽에 거울 떠날 때 나무도 섞게 떠가려고요.”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는 나무에 빙의한 듯,
드 소을 모아 말해다

“사장님아, 내를 좁은 화분에 가두지 말래이! 내 답답하다! 펴갈 때 쪼매 귀찮으면 으서때? 이카먼 내 제대로 못 쿠데이!”

그러고는 이내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와,
자기가 나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 같다며
그윽하고 요상한 웃음을 지었다. 순전히 자신의
생각을 뿐이라고 했지만, 조금 전 물로서까지

풀칠면 1



미련없이 후회없이 고구말랭이

발행일 2025년 12월 17일
글쓴이 고구말랭이



작은배가 진행하는
<일상묘사 : 수필 합평 모임>에서
탄생한 글입니다. QR 코드를 스캔하면
댓글로 감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글은 jaepunbae.com에서 확인하세요.

풀칠면 1